

중 국

중국판권협회, IP 이용허락 협력 및 운영 포럼 개최

2026. 09. 16.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중국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는 8월 27일 산둥성 지난(济南)에서 저작권 관계 부처, 문화관광 담당 부처, 업계 협회, 출판사, 인터넷 플랫폼, 디지털 기술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시대의 IP 저작권 가치 활용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국제디지털출판박람회의 부대행사인 <IP 이용허락 협력 및 운영 포럼(IP授权合作与运营论坛)>을 개최함.

○ 우수 IP 육성과 저작권 자산의 활용·보호 강화

중국판권협회 이사장 저우후이린(周慧琳)은 IP의 개발·이용허락·운영을 연계하여 저작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중앙선전부 판권관리국 국장 왕즈청(王志成)은 저작권 관련 법령 정비,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연구, 침해 사전경보체계 구축 및 중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산둥성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장통하이(张同海)는 산둥성의 저작물 등록이 4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저작권 플러스' 업무를 통해 전통문화 자원을 이용허락·운영·거래가 가능한 IP 자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산업별 IP 운영 사례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이번 포럼에서는 출판·웹소설·숏폼 드라마·디지털 소장품 및 저작권 보호기술 분야 관계자 8명이 출판콘텐츠의 장기 IP 전환, 웹소설의 영상·게임·상품화, 디지털 소장품을 통한 IP 가치 제고와 함께 블록체인·디지털 워터마크·인공지능 모니터링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및 기존 저작권 자산의 운영 방안을 발표함. 원탁회의에서는 저작권 자산 활용, 준법 관리, 산업 간 협력 및 IP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함. 중국판권협회는 2년 연속 해당 포럼을 개최하여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임.

■ 참고자료

중국판권협회 (中国版权协会)
- <https://mp.weixin.qq.com/s/7CxqTFaBqFIKUVAkwk0pQ>